

온라인 극우주의, 혐오와 조롱으로 결집하는 정치 감수성의 탄생

인싸를 죽여라(2022) Kill All Normies(2017)

앤절라 네이글 [Angela Nagle](#) 지음 김내훈 옮김 (오월의 봄)

+문화정치비평 격월간지 <[배플러](#)> (2016-2017)

+미국 최대 극좌 성향 매거진 <[자코뱅](#)>

+이십대 젊은 필진이 모여 만든 정치 격월간지 <[커런트어페어스](#)>

+뉴스레터 플랫폼 서브스택 - [앤절라 네이글 뉴스레터](#)

6. '페미니즘이 세상을 망친다' - 온라인 남초 커뮤니티와 대안우파의 연결고리

- **최근 몇 년간** : 리버럴 젠더 정치학이 급진화되고 소규모 페미니스트 온라인 공간에서의 반남성 레토릭이 주류로까지 확산되면서, 반페미니스트 남성우월주의 정치학도 번성함 (ex) 빨간약 은유 : 온라인 우파의 다양한 층위를 넘나들며 발아한 반페미니스트 남성우월주의의 정치적 하위문화의 핵심)
- **남성계 manosphere** : 남성의 건강, 자살, 불공평한 사회복지 등에 대한 관심을 바로잡고자 하는 진보적 남성문제활동가부터 비자발적 독신(인셀)에 집착하고 혐오로 가득하며 분노를 동력으로 삼는 여성혐오로 점철된 인터넷 추잡한 구석까지 망라하는 용어 (번역자 : 남초커뮤니티)
- **기존 남성운동** : 전통적 성역할 비판, 페미니즘 운동과 함께 > 제2물결 페미니즘 시기 강간과 가정폭력 논의에서 수사학적으로 남성 전체 비판, 남성에게 적대적인 입장 : 페미니즘과 결별 > 다양한 방향으로 분파, 불화 발생하고 과격파 성장 > 1990년대 남성을 차별하거나 배제하는 기관 및 제도에 초점 맞추게 됨
기존 남성운동단체들 _ 영국 성차별에반대하는남자들 Men Against Sexism, 신남성운동 New Men's Movement, 미국 기독교 남성 집단 약속의 수호자들 Promise Keepers, 여성화되고 원자화된 현대사회에서 잃어버린 남성의 진정성 희구 로버트 블라이 등
cf) 백래시 : 수전 팔루디 '백래시'에서 페미니즘에 대한 적대를 선동하는 남성운동
- **매노스피어 사례들**
레딧 서브포럼 빨간약 The Red Pill 가짜 행복에 겨운 자유주의의 감옥에서 깨어나 사회적 남성 혐오의 실재에 눈 뜨는 각성을 의미. 강간 무고, 문화적 남성 혐오, 보빨남pedestalling pussy 신세에서 벗어나는 법, '게임'(픽업아티스트), 성적 좌절감, 번식 탈락 불안
루시 V 뱅Bang 시리즈, <강간을 멈추는 법>
폴 엘람 설립 보이스포맨 <어니타 사키지언의 유혹>

폴 엘람 설립 레지스터 허 강간, 폭행, 아동추행, 살인 범죄 저질렀거나 허위 고발한 여성의
신상정보 올리는 곳

폐쇄, 차단된 레딧 PhilosophyOfRape, The Counter Feminist, Love-shy.com,
/r/menstights, The Anti-Feminist, SlutHate.com, /r/incel

샤토하티스트 : “페미니즘, 백인여성 낮은 출산율, 다른 인종간 결혼 출산, 이민 탓으로
백인문명 파괴됨”

복스 데이 부부강간은 모순적 개념, 결혼제도에 대한 공격, 인류문명 핵심토대 공격

* 남성인권 운동과 대안우파의 교집합

자신의길을가는남자들(믹토우) : 여성은 다른 남성 아이로 속이거나, 의도적 임신, 무고함.

마일로 이아노폴로스 <브라이트바트>에 게재한 <섹소더스 The Sexodus> 글. 남성들이
여성과의 연애, 섹스, 결혼으로부터 도주하는 것을 고무적으로 서술

프라우드보이스 금딸 No Wanks, 최소한의 정부, 최대한의 자유, 반PC, 인종 죄의식 반대,
총기 소유 지지, 마약 규제 반대, 국경 폐쇄, 자위 금지, 기업가 숭배, 전업주부 숭배

F. 로저 데블린 느슨해진 도덕과 혼란스러운 성 역할로 점철된 오늘날의 성적 디스토피아에
맞서야 한다

- **성적 위계질서** : 성 혁명은 보수적 결혼, 가족관념과 의무를 깨고 자유를 가져다 줌. 그러나
“이러한 청년기의 무기한 연장은 무자녀 성인의 증가와 가파른 성적 위계질서 또한 가져왔다.
일부일처의 쇠퇴로 인해 달라진 성생활에서 엘리트 남성은 한층 더 넓은 성적 선택권을 쥐는
반면 그렇지 않은 대다수 남성 인구는 점점더 독신주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처럼
자신의 낮은 지위에 대한 그들의 불안과 분노는 여성과 인종 문제를 향한 철저한 위계 질서의
주장으로 이어졌다. 가차 없는 거절에서 기인한 상처는 앞서 소개한 포럼들에서 굶아 터졌고,
그들은 자신에게 엄청난 치욕을 안겨준 잔인한 위계질서의 주인이 되는 것을 선택했다”
- **성적좌절감** : 좌절감 가득한 남자들 > ‘게임’으로 여성 유혹(사회다윈주의적 사고) > 잘 풀리지
않으면 사악한 자기애적 기질이 여성의 본성이라고 공격(여성혐오적 레토릭)

7. 온라인 극우의 오래된 레토릭 - 하위문화적 구별짓기와 ‘반항적 남성성’이라는 환상

- **우파의 논지는 언제나 혐오와 경제적 엘리트주의에 기반한 위계질서와 불평등을 옹호하는
주장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_ <사악한 : 리버럴 군중은 어떻게 미국을 위험에 빠뜨리는가> (앤
콜터) 지나친 다산, 급증하는 원주민 노동계급, 넘쳐나는 이민자 물결
- **[2016년] 대선 결과가 나온 직후 온라인 신우익에서는 갑자기 ‘보통 사람’ 서사가 퍼지기
시작했다** _ 패리스 힐튼이 우상 중 하나였던 마일로 이아노폴로스는 대선 이후 백인
노동계급에 대해 발언하기 시작.

- **하층계급에 대한 혐오와 부루안은 상스러운 찬문화의 무질서에서 좀 더 진지하고 긴 글로 개선된 대안우파의 이론까지를 관통하는 대안우파 담론의 가장 주요한 특징이다** _ 찬문화, “은어와 복잡한 규칙 및 전문지식을 휘두르며 ‘눅n00b’들을 괴롭히는 식으로 하위문화의 대중화를 막는 것” (데이비드 아우어바흐), “트롤링은 기본적으로 인터넷 우생학이다. 나는 사람들이 죄다 인터넷에서 꺼지길 바란다. 60억 인구의 4분의 1을 죽일 수 있는 가장 공정한 방법은 무엇일까?” (위브 - 스와스티카 문신을 한 해커이자 트롤 나치인)
- **모든 끔찍한 것들 앞에 취약해져버린 문화를 진보파가 저항 헤게모니적 힘으로 낭만화하게 만든 것도 바로 이 공백이었다** _ 휘트니 필립스 “대항헤게모니의 향연”, “기득권 미디어의 서사와 현대 스물네시간 뉴스보도의 목적없는 부조리극의 기반을 약화하는 존재”, 가브리엘라 콜먼 “포챌이라는 시궁창이 정말로 오늘날 정치적으로 가장 능동적이고 도덕적으로 흥미로우며 체제 전복적으로 중요한 활동가 집단이 된 것일까? 다소 놀랍게도, 대답은 ‘그렇다’이다”
- 손턴은 문화자본이 세련되고 정중한 예의를 갖춤으로써 획득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하위문화자본은 ‘뭘 좀 아는 것’, 즉 소수만 쓰는 은어 및 하위문화 특유의 요소들을 이용함으로써 스스로를 주류 문화와 대중사회로부터 구별지을 줄 알아야 획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감히 덕후 하위문화(geeky subculture)에 침입하려는, 알팍하고 무분별하며 아무 생각 없이 주류 취향을 좇는 젊은 여성을 향한 증오는 덕후 하위문화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_ 무신론자 페미니스트 혐오 공격(레딧의 무신론포럼 r/atheism), 등신 너드 소녀 밈, “관종 창녀”, “별창” “정액번기” 하위문화의 관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헛소리만 남발하는 존재로 간주. “하위문화들은 자신들의 네트워크가 이처럼 대중화되고 여성화되는 데 공격적으로 반대함으로써 그 경계를 지키고자 한다”
- **대안우파의 세계에서 염세주의와 여성혐오, 그리고 여성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순응에 대한 증오가 결합한 것** _ 위반적 온라인 우익의 새로운 ‘핑크’라는 담론적 형식에서, 정착하고 동지를 튼다는 것은 (남성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호기로운과 매서움을 잃고) 무더진다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 위반과 포르노그래피, 그리고 폭력의 재현들은 정착에 대항하는 힘으로 여겨지며 남성의 공간을 침해하는 여성들을 향한 온라인 증오 범죄의 동력이 된다
- **우리가 ‘트롤을 트롤링’하려는 시도로 이러한 새로운 우익의 언어를 그대로쓴다거나 그들의 온라인문화를 모방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그보다 우리는 훨씬 더 깊은 곳의 무언가를, 온라인 우익이 드러내고 있는 그것을 거부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모두가 ‘신랄함’이라는 이미 죽은 말을 채찍질하고 있다. 이제 그만 지극히 최근의 너무나 현대적인 반문화의 미학적 가치와 그에 기반한 패러다임을 내려놓고,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논의]

- 이별한 전 연인을 옥상에서 살해한 의대생, 신림동 공원 성폭력 살해 가해자, 이혼하려는 배우자의 머리를 쳐서 죽인 변호사 사건 등을 보면서 왜 자기 자신의 생애, 명예, 부, 지위, 자리 같은 전통적인 권력의 상징에도 미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 하는 의문이 든 적이 있다. 세 가해자 모두 열패감에서 시작된 폭력을 여성 대상으로 행사했는데, 막바로 살해로 갔기 때문이고, 의대생이나 김앤장 변호사 같은 사회적 위치나 일상은 고려되었나? 싶을 만큼 일상에서 살해로 점프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신림 공원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여자랑 한번도 자보지 못했다는 열패감이 살인하는 현장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인가? 그 비약 사이가 자신의 사회적 위치성과 일상이 사라져도 좋을만큼인지 의문이 되었기 때문. 책 7장에서 이야기하는 ‘순응과 정착’에 대한 증오, 거부, 이탈이라는 분석에서 실마리를 찾아본다. 여성에 대한 배제, 증오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자신의 전통적인 안정성과 위치를 구가하는 것보다 앞서고 있다는 것.
- 저자의 논지를 보면서, 찬문화를 대항적 하위문화, 저항문화로 낭만화하는 일부 진보주의자의 논의에 분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2019? 2020? 년 여성회의 한 장면이 떠올랐다. 이가현 발제자는 영영페미니스트를 낭만화하기 보다 그 내부의 저격 문화,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 등에 더 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곡절하게 발제한 바 있다. 인터넷 밈문화에 대해 누가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연구자의 위치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며, 인터넷 문화를 손쉽게 낭만화하는 사람들의 위치성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됨. 저자는 현란할 만큼 찬문화의 일거수 일투족으로 우리 귀에 눈에 때려 박으며 쓰고 있다. 대충 보고 낭만화하지 말고 자세히 알고 역겨움을 똑똑히 직면하자고 하는 것 같음. 인셀테러와 같은 책에서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 이 책의 저자는 말투나 논지에 더욱 더 동세대인으로서의 답답함과 분노가 서려있는 것 같다. 인터넷에서 직접적인 표적이 되거나 배제되어 보거나, 언제 좌표가 찍힐지 모른다는 감각을 느껴본 여성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 그로부터 대항담론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한 측면. ‘앤절라들’이 모이면 어떤 이야기를 결론 이후에 더 하게 될까?
- 저자는 2020년 버니샌더스 캠페인의 실패에 대해서 비판하는 긴 글을 공동저자로 남긴바 있는데, 그 글의 제목은 [First as Tragedy, Then as Farce: The Collapse of the Sanders Campaign and the “Fusionist” Left](#) 였고 (저자 by Angela Nagle and Michael Tracey) 버니샌더스 캠페인 팀의 활동가 DUSTIN GUASTELLA는 반론을 썼는데 제목이 [We Need a Class War, Not a Culture War](#) 였다. 뭘 논쟁인지 너무 궁금한데 영어의 한계, 저자의 특유의 말투 등으로 핵심 쟁점을 잘 파악을 못했다. 일부 구절을 눈여겨 읽게 되긴 했지만. 영어

잘하시는 분? (cf) 앤절라는 좌파로 정체성의 정치, 국경개방에 반대하는 논지를 펴고 있는
것도 같다)